

사설

핑계가 될 수 있는 ‘관행’ 고쳐야

본교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부터 회원들의 본교 포털 계정을 공유하며, 체육시설을 돌아가며 예약했다. 탈퇴한 회원이 시설 사용 신청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인지됐다. 해당 동아리 집행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인터뷰한 피해자의 계정이 3년 전부터 꾸준히 사용된 것을 보면, 최소 3년간 해당 피해자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인수인계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최소 3년간은 관례적으로 개인의 포털 계정을 시설 예약에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다’,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나, 위법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는 학생 사회에서는 더 흔한 변명이다. 실제로 부적절한 예

산을 지적받은 학생회가 ‘관례여서 몰랐다. 사비로 충당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으며, 총학생회가 응원단의 예산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관례라는 이름은 비판적 사고 없이 업무수행 방식이나 양상을 받아들이게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관행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적을 받아치고 넘어간다. 부적절한 관행들이 비판을 마비시키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핑계가 되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사회, 특히 학생회나 동아리와 같은 자치단체는 업무수행 방식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업무수행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이야말로, 학생 사회의 자정 작용이 중요해진 시기가 아닐까. 학우끼리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구성원들에게 점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석탑추추

올라야 할 것은 안 오르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오랜만에 개강일부터 전면 대면수업이 진행됐소. 호형들이 교정을 가득 메웠다오. SK미래관 1층,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책걸상이 강의실로 옮겨져 수업을 도왔소. 자유마루에 돌아온 야외 테이블은 공공 시간을 책임졌소. 새벽 4시까지 자유마루는 서로를 반가워하는 소리로 가득했구려.

○…반가운 호형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오. 지난 3년간의 학교 인근 식당 가격 인상을 조사했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평균 9.6% 가격이 올랐다오. 연어이야기의 ‘숙성연어회 小’는 2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됐소. 고른햇살 참치김밥은 결국 4000원이 됐구려.

○…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가격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소. 담당 업체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재작년과 작년 총 3억 6400만 원의 적자를 봤다오. 총무부는 업체에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운영시간을 줄이는 등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소. 이에 한 호형 말하길, “학생회관도 오르면 어디서 먹어야 할지!”

○…그런데 인문사회관은 언제 오르는 게요? 문과대학과 심리학부는 홍보관이 철거된 후 국제관에 있는 임시 과방에 옮겨졌중이오. 15개 학과(부)와 10개 자치동아리가 550㎡(약 167평)의 공간을 나눠 쓰고 있다오. 심지어 국문과 임시 과방은 전장이 붕괴돼 사용하지 못하고 있소. 대면수업으로 교정에 학생들은 많아졌지만, 학생들이 머물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구려.

류요셉 취재2부장 sonador@

석탑만평

조은결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2부장	류요셉	총무국	02-3290-1682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기획1부장	엄선영	인쇄 중앙일보
		기획2부장	윤혜정	홈페이지 www.kunews.ac.kr
발행인	정진택	사진부장	강동우	메일 press@kunews.ac.kr
편집인 겸 주간	김재환	미디어부장	김채연	페이스북 /kunews1947
			플러스친구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원호	편집국	02-3290-1683	주소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08
취재1부장	김시현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청산MK문화관 6층

시론

김채연  
고려대 교수·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최근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 및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임을 이야기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으로 촉발된 문화다양성 연관 활동들이 포괄적인 다양성 논의로 구체화되어 간다. 산업 분야에서도 ESG경영 중 ‘S(social)’와 ‘G(governance)’에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성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갈등의 기저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다. 세대와 젠더에 따른 의견의 대립은 갈등을 넘어 혐오의 언어로 우리 가까이에 있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 난민 수용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에 대한 보도가 넘쳐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촉구와 반대 간 팽팽한 대립도 그렇다.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로서 받아들이든, 해결해야 할 갈등과 문제의 기저로서 바라보든, 다양성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관한 것이다. 효율과 성장 위주의 개발 시

대를 지나 물리적 거리와 언어의 차이가 큰 제약이 되지 않는 시대에 다양성은 이미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신념,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종교, 문화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다양성이 최근해야 주목받고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다양성은 개개인이 지니는 차이 그 자체에서 더 나아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대표되지만 그 안에 개방성, 포용성, 형평성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불편하고 노력을 요한다.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아마도 다양성과 관련된 집단 간 갈등은 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신체적,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 신념과 사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 점에서 다양성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질성이 높은 사회와 조직이 단기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높은 조직이 더 낫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보여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정치·경제적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이 더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조직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주어지고, 정보처리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생긴다. 여기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구성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컨설팅 기업 매킨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 ‘다양성의 승리(Diversity wins : How inclusion matters)’에 따르면 15개국 1000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이나 인종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는 2019년 한국 사립대학교로서는 최초로 총장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를 설립했다. 다양성위원회는 격년으로 다양성 조사를 실시해 대학 내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추적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구성원이 어떠한 개인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제한 없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문화, 행정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짧지 않은 비대면 시대를 지나 구성원 대부분이 돌아와 가득 메운 2022년 9월의 캠퍼스는 그 자체로 다양하다. 대학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다양한 타인들과 소통하고, 다름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대학 밖에서도 크게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수레바퀴

두 개의 여름

8월 중순, 기계적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넘겨보다 무언가 깨닫고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쇼핑물 사진 속 사람들이 죄다 긴팔 차림이었다.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던 지하철 안의 나는 반팔 차림이었다. 사진에 딸린 텍스트들이 하나같이 가을 시즌이 왔음을 공지했다. 가을이라니. 그전까지 땀벌에 땀을 흘리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던 나도 괜히 조급해졌다.

여름이 사라지고 있다. 계절 하나를 보내야 할 때가 되면 자연히 그 계절을 돌아보게 된다. 대학 입학 후 두 번의 여름을 맞았다. 누군가 나의 스무 살 여름을 묻는다면 나는 그 대답을 피해야만 했다. 기억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 여름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가 폭염과 한데 뒤섞여 온통 찻점하기만 했다.

누군가 나의 스물한 살 여름을 묻는

다면 대답을 위해 고심하겠다. 감히 한마디로 압축하기에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울창했다.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 첫 여름이었다. 이 여름을 기억하고 싶어 자주 카메라를 들었다. 앵글마다 녹음이 걸렸다. 작년 여름에는 단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

계절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내는 태도에 달려있다. 고작 일 년을 시차로 두고 찾아온 여름을 기억하는 내 방식의 변화는 현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작년 이맘때의 나는 나를 잡아끄는 상념들에 붙잡혀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어갔다. 고대신문 미디어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 앞에 놓였던 이번 여름의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만 했다. 그러자 시간의 궤도에서 나를 이탈하게 했던 상념들이



사라져갔다. 울창한 여름은 그제야 뚜렷이 보였다.

계절 하나를 보내주는 건 설레기도 하지만 아쉬운 일이기도 하다. 이번 여름은 유독 보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른게 가을 시즌 상품을 선보인 쇼핑물에서 섭섭함과 조급함을 느꼈나 보다. 그러나 여름을 보내줘야 그다음 현재인 가을이 올 수 있는 법임을 이젠 안다. 다가올 가을도 이젠 맞이할 준비가 됐다.

김채연 미디어부장 icetee@

중단횡단

치열한 삶, 친절할 삶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는 지난 주 서울대 학위 수여식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일인사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개강 첫 주, 방학 동안 잠시 잊고 있던 ‘대학에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를 떠올려본다. 지난 학기의 나는 대학을 다니는 이유를 찾았다며 만족했다. 학문의

배움을 넘어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웠기 때문이다.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지 고민했다. 인생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했다. 내가 배우는 학문이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게 됐다.

하지만 고민은 지속된다.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에 대한 고민. 본인의 상황에 만족할수록, 심적으로 평온할수록 순간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항상 여유로울 순 없기에 이를 추구하려는 자세는 필수적이다. 치열한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삶의 형태가 경쟁과 비교로 점철되고 싶지 않다. 허준이 교수가 강조한 ‘온전한 하루에 대한 경험’ 그리고 ‘불

필요한 산만함에 대한 경계’를 계속 기억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치열함은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나가는 것. 치열함 속에서 나에게 대한 애정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도록 친절해야겠다. 오래도록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동고동락하고 싶다. 모두의 치열한 삶이 덜 흔들리도록 함께 하고 싶다. 친절하고 치열한 삶은 사회를 향한 친절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 다시 한번 허준이 교수의 마무리 말을 덧붙인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나지은 기자 itsme@